

2016년 7월 20일 [제5강]

에베소서 5장 1절 ~ 5장 33절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2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8절). 지혜로운 사람답게(15절) 살아야 합니다. "... 답게"사는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5장 1절 ~ 5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3.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4.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5.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6.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10.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11.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여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12.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14.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절 해설]

(5장 14절) 잠자는 사람: 여기서는 육신이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1)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5:5 중반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

(3)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 (로마서

12:1).

2.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4절).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할 말은 각각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

할 말 -

3. (5장 5절)에서는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5절)

(골로새서 3장 5절)

- 좁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형상화해서 경배하는 것을 말한다.

- 넓은 의미에서의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4. 크리스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1) 분별 기준:

-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2)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대한 대응

-

- 어둠의 일을 폭로한다.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증거는 이러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5장 15절 ~ 5장 20절)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6.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20.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6. 크리스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15-18절)에서 정리해 보세요.

(1)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 악한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도록 조정을 한다.

(나눔 1)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나눔 2) 우리에게 부족한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입니까?

(나눔 3) 시간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나눔 4)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3)

(4)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음에 주의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것

둘째,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명령이다. 성령 충만은 매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비워 드려야 한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7. (19~20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배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 33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 29.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 32. 이 비밀은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 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구절 해설]

(5장 26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디도서 3:5, 벰전 1:23)를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성화).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5장 32절) 이 비밀: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8. 에베소서 5장 21절-33절은 결혼식 주례사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1) 부부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훈

(21절) 서로 순종하여야 한다.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라고 한다.

(31절)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긴다.

(2) 남편에게 주는 교훈

(3) 아내에게 주는 교훈

9.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1) 교회를 사랑하신다 -

(2)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

(3) 교회를 흠이 없고 아름답게 하신다.

* 교회를 신부로 여기신다!